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A Survey on the Medical Libraries Librarian's of Perception about Bibliotherapy Services

임 성 관(Seong-Gwan Lim)*

<목 차>

- | | |
|------------------|--------------------------|
| I. 서론 | 4. 선행연구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I.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
| 2. 연구문제 및 방법 |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2. 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조사 |
| 1. 의학도서관 | 3.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 사항 |
| 2. 독서치료 | IV. 결론 및 제언 |
| 3.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문제 | |

초 록

독서치료는 문학을 통해 개인 욕구의 충족 및 건강한 심신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성원의 육성,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달로 인하여 결국 국민의 총체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 중에서 의학도서관 57개를 대상으로 사서 57명에게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키워드: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독서치료 서비스,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사서의 인식

ABSTRACT

Bibliotherapy personal appetite through literature as well as physical and mental health while it also creates production of healthy society and healthy leisure. As a result, it might be an approach to qualitative development of our society in terms of being an effective tool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welfare improvement of our n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s of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to conduct survey on the librarians of perception about bibliotherapy service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o provide basic data for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To do this, Analyses of questionnaires going out to 57 librarians of 57 medical libraries among the member libraries of the Kore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librarians in the medical libraries perceive highly of providing bibliotherapy services for the us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likely suggest the need to re-align or shift current bibliotherapy services.

Keywords: Medical library, Bibliotherapy, Bibliotherapy service,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Librarians' perception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초빙교수(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 2015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5월 26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227-255,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6.2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의료기관들은 진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병원 의료의 질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의사 및 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고객중심의 경영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던 시절에는 의료기관 이용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였고, 이용자보다는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익위주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 의료기관의 신설, 기존 의료기관의 확장에 따른 의료 공급의 증대와 함께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에 대한 의식수준과 욕구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의료서비스가 사회복지의 일환이라는 의식이 보편화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대되었다(한우석, 김재열 2008, 2549).

이와 같은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직원들은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김수현 등(2006, 416)은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직원들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이용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모든 소속 기관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주로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직원들이 정신건강 관련 연구와 진료,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발굴하고 정리하며 보급하는 곳인 의학도서관은 의료기관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의학도서관은 의사 및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진들에게는 전문 의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전체 직원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고객 감동을 중요 부분으로 인식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넘어 치유의 경험(healing)을 할 수 있도록 감성 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의학도서관에서도 의료기관의 주체인 의료진과 직원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를 먼저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서치료는 장기 입원 환자 및 그 가족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병원도서관으로 서비스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도서관은 1968년에 설립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노력으로 점차 전문

화 및 세분화가 되고 있는 의학 분야에 걸맞은 적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나, 급변하는 현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변을 넓혀 가고 있는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 서비스에도 필요한 분야임을 전제하고,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 이용자인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직원들을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의학도서관과 독서치료,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201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은 모(母) 기관의 연구자와 직원을 위한 의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보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보건과학도서관(Health Sciences Library)이라고도 칭하며 병원, 의학교, 의학연구소 등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의학도서관은 의학에 관한 주제 분야만을 다루며, 많은 다른 도서관과 장서 구성, 시설, 이용자, 도서관의 형태, 그리고 특정 서비스의 강조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전형적인 전문도서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르면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2호)

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는데, 의학도서관 역시 이용자진료와 의학 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이연주 2009, 23).

의학도서관은 임상의학, 간호학, 약학, 기초의학 등 인체과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 교육 및 이용자치료에 관련된 의학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제공한다. 의학 분야는 정보회전율이 빠르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은 연구와 이용자치료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학도서관이 최신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꼭 필요한 정보제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게 정보가 수집되고 정리되어 이용되는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찬식, 한혜영 2005, 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 기관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은 소속 기관이나 이용자의 성격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곳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와 학생을 위한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도서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모기관의 의료진을 위한 병원도서관, 정부산하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소도서관, 제약회사처럼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제약회사도서관이 그것이며, 이들을 ‘의학 전문도서관’이라 통칭한다(노동조, 김정아 2010, 46).

의학도서관은 크게 대학도서관, 병원도서관, 연구소도서관, 기타의 도서관 등 4개로 나눌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의과대학 등 학위과정을 가진 대학에 소속되어 교수와 학생의 요구에 서비스하는 도서관이다. 병원도서관은 병의원 내에 있는 것을 말하며, 연구소도서관은 연구소 내에 소속된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조화순 2011, 13-14).

요컨대 의학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의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봉사하여야 하며, 의학 관련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연구, 업무의 측면에서 의학도서관에 주어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전문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조찬식 2006, 266).

다음의 <표 1>은 (사)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전국 의학도서관 분포 현황이다.

2. 독서치료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참여자가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일대일이나 집단으로 토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의 구체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적응과 성장 및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현희 외 2004, 19).

<표 1> 전국 의학도서관 분포(한국의학도서관협회, 2005)

도서관 형태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대전	경상/ 부산/ 대구	전라/ 광주	제주	합계
대학도서관	12	7	6	8	14	6	1	54
병원도서관	31	22	2	4	19	4	1	83
연구소 도서실	8	2	·	5	·	·	·	15
제약회사 도서실	6	4	·	·	·	·	·	10
합계	57	35	8	17	33	10	2	162

독서치료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bibliotherap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Crothers’였다. 그는 ‘Atlantic Monthly’(1916, 291-301)에 실린 기사에서 “독서치료는 새로운 학문이다. 독서치료를 하는 중에 어떤 특정한 책이 가지는 실제적인 치료 효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독서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즉, 1904년 매사추세츠 주(Massachusetts) 웨벌리(Waverly)에 있는 맥리안(McLean) 병원도서관에 독서치료사로 임명된 사서가 독서 자료를 가지고 이용자 치료에 성공함으로써 독서치료의 가치성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서치료가 도서관 업무의 한 분야로서 처음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독서치료가 정신치료의 하나로서 과학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1937년 정신의학자인 William C. Menninger 박사가 5년간에 걸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로 독서치료가 임상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독서치료는 정신요법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병원도서관 전문 사서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서치료를 하나의 학(學, Science)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Tews 1970, 173).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은 문헌정보학계에서 가장 먼저 가졌다. 1960년대에 Hannigan의 논문이 「도서관과 비부리오세라피」(Hannigan 1964, 133-139)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국회도서관보 제1권 3호에 게재되었고, 1968년에 김병수가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라는 글을 전북교연의 회지인 「교육연구」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독서치료 분야는 정신과 이용자들에게 책을 선정해 주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병원도서관 사서들과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2호)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1940년대에 크게 증가했고,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관련 논문이 400여 편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병원도서관 사서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학도서관이나 병원도서관에서 의료진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독서치료 서비스에 관한 사례 보고나 관련 연구는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2>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독서치료 분야 연구 내용을 LISTA(Library,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를 통해 임성관(2012, 15)이 분석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분석 내용을 보면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봉사 등을 위해 독서치료를 실행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도서관 사서에 의해 의료진 및 병원의 직원들을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가 실행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확인할 수 없다.

<표 2>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독서치료 연구 내용 분석

연구내용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독서치료의 이해(이론, 가치, 방법 등)	-	3	2	2	2	2	-	-	11
독서치료 관련 치료(시, 문학, 예술)	-	-	-	1	-	-	-	-	1
도서관 서비스(참고, 정보봉사, 이용자교육, 사서, 공공(지역)도서관 등)	1	4	1	6	2	2	5	2	23
전문성 교육(독서치료사, 사서, 교과과정)	-	2	-	1	-	1	1	1	6
장서개발(자료목록, 선정기준 등)	-	1	-	-	-	1	-	-	2
병원도서관(환자 봉사 등)	-	-	-	2	1	1	1	-	5
학교도서관	-	-	-	1	-	-	-	1	2
대학교도서관	1	-	-	1	-	1	-	-	3
대상별(정신 문제) 등	1	1	1	5	-	4	-	2	14
계	3	11	4	19	5	12	7	6	67

관중을 불문하고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서는 심리치료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상담사나 의사처럼 치료를 진행할 만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임상문제가 아닌 발달문제, 즉 정서의 영역은 사서가 치유적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치유적 책 읽기를 통해 이용자를 자가 치유의 환경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서는 중계자로서 의도된 소극성을 가지고 이용자와의 상호소통과 활동 속에서 이용자의 정서적 불편감 등의 발달문제를 통찰케 하고, 왜곡된 정서로 인한 불편감과 미숙한 처신을 직면케 할 수 있다(최영식 2014, 71). 그러므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도 치유적 안내자로서 독서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문제

의학도서관의 사서는 의료진 및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그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적정 자료를 선정하여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모색 및 접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의학도서관의 주 이용자들을 구분하고 그들이 겪는 문제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의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전문적 지식의 소유자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으며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것 같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의사로서 무력감과 슬럼프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하루에 여러 명의 이용자들을 대하다 보면 그만큼 의사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이용자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의사들은 자신이 치료자로서 무능하다고 여길 수가 있다.

의사들이 경험하는 어떤 스트레스는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사회 환경의 변화나 의사직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과 같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있다(Sutherland and Cooper 1992, 1545). 심리적인 부담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한 Karasek(1979)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들은 높은 심리적 부담을 가짐과 동시에 높은 자율성을 가진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Karasek의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의사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시간적 압박, 이용자의 방문, 업무 부담, 업무 통제의 자율성 등이 의사들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Linzer et al. 2002). 이것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높은 심리적 부담이 반드시 심한 스트레스로 경험되는 것은 아닌 반면, 만약 자율성이 제거되면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부담과 과중한 업무량은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Sutherland and Cooper 1992, 1546).

의료 전문직의 스트레스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의료 제공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Muldary 1983). 특히 이들 의료 전문가 집단은 보건 의료 영역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회 집단이므로 이들의 태도와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김종연 외 2004, 45). 의사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진료의 질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 이용자 관계가 악화되

고 지나친 흡연이나 과음 같은 나쁜 건강 행태를 가지기 쉬워서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이용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일반 국민들의 건강 관련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강문국 2006, 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심리정서적인 문제)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의사들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Sutherland and Cooper(1992)	직업의 특성, 사회적 변화 등의 상황
Karasek(1979)	심리적인 부담,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Linzer et al.(2002)	시간적 압박, 이용자의 방문, 업무 부담, 업무 통제의 자율성

나.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의 질적, 양적인 요구의 증가와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과중,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하는 업무, 직접 이용자 간호는 물론 각종 문서와 정보 및 전자 시스템의 관리와 행정 업무 등으로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각하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Grandner, Parzen and Stewart 1980).

특히 23시간 연속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간호사의 교대근무는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며, 생체리듬의 부적응으로 수면장애, 위장장애, 불면증, 신경장애를 경험하며 가족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방해 및 사회 활동의 감소로 인한 갈등과 불만이 깊어지고, 밤 근무는 정상적인 수면양상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수면부족현상이 누적되어 이로 인한 피로의 증가로 위장관의 장애와 함께 기존 건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Khaleque and Siddique, 1984).

이와 같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대부분은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며 간호 인력은 병원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개인적, 직업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직종의 인력에 비해 많은 수가 직장을 떠나고 있다(김조자, 박지원 1991, 383). 이직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동료직원의 사기 저하, 이용자 간호의 양적·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권덕화, 고효정 2003, 14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심리정서적인 문제)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Grander, Parzen and Stewart(1980)	의료의 질적·양적인 요구의 증가,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과중,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하는 업무, 직접 이용자 간호, 각종 문서와 정보 및 전자 시스템의 관리와 행정 업무 등
Khaleque and Siddique(1984)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부적응

다. 의과대학생

의대생들의 심리 갈등은 3가지의 근원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가 청소년기 적응문제, 둘째가 장기간 잠재해 오던 정신 내적 갈등의 재연, 셋째가 학업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였다. 의과 대학에서의 경쟁은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의학 공부는 교육의 대체성 가치(training convertible value)가 타 분야보다 훨씬 적어서 도중 탈락자는 타 직업 전환과 새 직업에서의 경력 발전이 둘 다 어렵게 된다. 결국 의대생들은 걱정과 갈등이 쌓이면서도 공부를, 특히 시험공부를 경쟁 속에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조두영 1985, 51-55).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은 학습량이 많고 필기·구두시험·구두 발표 등의 과중한 평가가 존재한다. 또한 의과 대학의 독특한 제도 중의 하나로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에 대해 해당 학년만큼의 기간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박종 등 1998, 85-92). 결국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생들 모두가 과중한 평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 실패로서 나타날 수 있는 유급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박찬원 1999, 2). 의과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의학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수많은 역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신이 겪게 되는 경험이 부정적으로 자각될수록 이들의 학업 동기가 저하되어 학업성적이 떨어지게 된다(Ames 1992). 더 나아가 이는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의 형성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들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지어 유급 및 학업포기 등의 심각한 학업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Guthrie et al. 1998).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심리정서적인 문제)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박종 등(1998)	학습량이 많고 필기·구두시험·구두 발표 등의 과중한 평가가 존재, 유급제도 존재
박찬원(1999)	학업에 대한 심적 부담, 과중한 학업 양, 수면부족, 재정적 압박
Ames(1992)	역경 및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학업 동기 저하 및 학업성적의 하락
Guthrie et al.(1998)	유급 및 학업포기 등의 심각한 학업문제 야기

라. 직원(병원종사자)

보통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간호사를 포함한 행정직과 진료를 지원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은 병원종사자라 불리기도 한다.

병원종사자들은 의료진들을 지원하면서, 때로는 협동을 통하여 의료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 회복, 고통의 경감 및 건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갖고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정당한 평가와 보상, 동료나 상하직급에서의 대인관계가 유지될 때 직무만족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종사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요구함으로써 이로 인한 조직구성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생리적 악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과다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에 개인의 건강 문제는 물론 결근, 성과 저하, 불만족 등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려 결국 이직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학중 1985).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병원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심리정서적인 문제)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직원(병원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이학중(1985)	다양하고 많은 업무(의료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 회복, 고통의 경감 및 건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 수행)로 인한 스트레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현재 업무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도움이 필요하다. 〈표 7〉은 〈표 3〉부터 〈표 6〉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표 7〉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스트레스 요인

이용자 유형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의사	Sutherland and Cooper(1992)	직업의 특성, 사회적 변화 등의 상황
	Karasek(1979)	심리적인 부담,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Linzer et al.(2002)	시간적 압박, 이용자의 방문, 업무 부담, 업무 통제의 자율성
간호사	Grander, Parzen and Stewart(1980)	의료의 질적·양적인 요구의 증가,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과중,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 직접 이용자 간호, 각종 문서와 정보 및 전자 시스템의 관리와 행정 업무 등
	Khaleque and Siddique(1984)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부적응
의과대학생	박종 등(1998)	학습량이 많고 필기·구두시험·구두 발표 등의 과중한 평가가 존재, 유급제도 존재
	박찬원(1999)	학업에 대한 심적 부담, 과중한 학업 양, 수면부족, 재정적 압박
	Ames(1992)	역경 및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학업 동기 저하 및 학업성적의 하락
	Guthrie et al.(1998)	유급 및 학업포기 등의 심각한 학업문제 야기
직원 (병원종사자)	이학중(1985)	다양하고 많은 업무(의료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 회복, 고통의 경감 및 건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 수행)로 인한 스트레스

4.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분야에 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의학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독서치료를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룬 것에서부터,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출간된 것, 특정 질병을 다룬 것을 두루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경채(2005)는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범위가 의료진을 넘어 병원 내부 고객인 교직원과 이용자, 보호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언급하며, 의학도서관계에서도 이용자와 보호자를 위한 도서목록을 발간하고,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큰 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어서 장귀녀(1985)는 독서요법 관계 문헌들을 통해 그 이론과 시행방법, 특히 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러한 요법의 시행 가능성과 병원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인식 척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있는 병원도서관

45곳과, 그 가운데 원목실이 있는 병원 20곳에 따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한 뒤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병원도서관의 사서들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독서요법이 다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독서요법의 시행은 서서히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귀녀의 연구는 의학도서관이 아닌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병원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의 접목이 보편화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는 면에서 본 연구와의 접목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의학 분야에서 홍을표(2007)는 독서치료가 노인 정신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외국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독서치료가 국내에서 노인의 정신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및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문헌 고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운우(2005)는 암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를 통해 그들을 위한 상황별 목록이 생산될 필요성을 있다고 제안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자료들을 선정해 제시했다. 그의 연구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선행연구 현황

연구자	연구 내용
김경체(2005)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 실시
장귀녀(1985)	독서요법 관계 문헌들을 통해 그 이론과 시행방법, 특히 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조사 연구 실시
홍을표(2007)	독서치료가 국내에서 노인의 정신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및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문헌 고증적 연구를 진행
이운우(2005)	암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를 통해 그들을 위한 상황별 목록이 생산될 필요성을 있다고 제안

Ⅲ.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분석

조사 대상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인 성별, 연령, 기관 소재지, 사서 자격의 유무 및 종류, 의료 기관 형태, 도서관 유형,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별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 중 ‘남자’는 16명, ‘여자’는 41명이었다.

<표 9> 응답자의 성별 현황(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성별	남자	16	28.1%
	여자	41	71.9%
합계		57	100%

나. 연령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 중 ‘20대’는 7명, ‘30대’는 23명, ‘40대’는 16명, ‘50대’는 10명, ‘60대’는 1명이었다.

<표 10> 응답자의 연령 현황(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연령	20대	7	12.3%
	30대	23	40.4%
	40대	16	28.1%
	50대	10	17.5%
	60대	1	1.7%
합계		57	100%

다. 기관 소재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7곳, ‘경남’이 1곳, ‘경북’이 1곳, ‘전북’이 2곳, ‘충남’이 1곳, ‘제주도’가 1곳, ‘서울’이 33곳, ‘부산’이 6곳, ‘인천’이 1곳, ‘대구’가 4곳이었으며, ‘전남’, ‘충북’, ‘대전’, ‘광주’, ‘울산’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표 11> 응답자의 기관 소재지(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기관 소재지	경기도	7	12.3%
	강원도	1	1.7%
	경상남도	1	1.7%
	경상북도	1	1.7%
	전라남도	0	0%

기관 소재지	전라북도	2	3.5%
	충청남도	1	1.7%
	충청북도	0	0%
	제주도	1	1.7%
	서울특별시	32	56.2%
	부산광역시	6	10.5%
	인천광역시	1	1.7%
	대전광역시	0	0%
	대구광역시	4	7%
	광주광역시	0	0%
	울산광역시	0	0%
	합계	57	100%

라. 사서 자격의 유무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은 사서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 자격의 종류로는 ‘1급 정사서’가 15명, ‘2급 정사서’가 41명, ‘준사서’가 1명이었다.

<표 12> 응답자의 사서 자격 소지 현황(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사서 자격	1급 정사서	15	26.3%
	2급 정사서	41	72%
	준사서	1	1.7%
합계		57	100%

마.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는 ‘상급종합병원’이 17명, ‘종합병원’이 21명, ‘(대학)도서관’이 17명, ‘기타’ 2명이었다. 반면 ‘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0명이었다.

<표 13>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도서관 유형	상급종합병원	17	29.8%
	종합병원	21	36.9%
	병원	0	0%
	병원급 의료기관	0	0%
	(대학) 도서관	17	29.8%
	기타	2	3.5%
합계		57	100%

바.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유형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의 유형은 ‘의대도서관’이 17명, ‘의대분관’이 3명, ‘의대 및 병원도서관 기능’이 13명, ‘병원도서관’ 21명, ‘기타’ 3명이었다.

<표 14>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유형(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도서관 유형	의대도서관	17	29.8%
	의대분관	3	5.25%
	의대 및 병원도서관	13	22.8%
	병원도서관	21	36.9%
	기타	3	5.25%
합계		57	100%

사.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의학도서관에 근무한 경력은 ‘1년 미만’이 7명, ‘1년 이상 3년 미만’이 7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3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명, ‘10년 이상’이 32명이었다. 응답자 중에는 29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16명이나 되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 사서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이 수립되고 필요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전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근무 경력	1년 미만	7	12.3%
	1년 이상-3년 미만	7	12.3%
	3년 이상-5년 미만	3	5.25%
	5년 이상-10년 미만	8	14.05%
	10년 이상	32	56.1%
합계		57	100%

2. 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조사

조사 대상 응답자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독서치료 인식 유무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에 달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2.3%에 그쳐, 대부분의 사서들이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독서치료 인식 유무(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독서치료 인식 유무	알고 있다	50	87.7%
	모른다	7	12.3%
합계		57	100%

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55명은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을 했다. 반면 ‘실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명에 그쳤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자관에 접목해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7>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독서치료 실시 유무	있다	2	3.5%
	없다	55	96.5%
합계		57	100%

다. 타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

그렇다면 자관이 아닌 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명,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37명이었다. 여전히 부정 답변이 많지만, 있다는 응답

도 20명이나 되는 점으로 봤을 때 설문에 응한 의학도서관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는 독서치료 관련 서비스를 접목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8> 타 의학도서관의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타 의학도서관의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	있다	20	35.1%
	없다	37	64.9%
합계		57	100%

라.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3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명이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기는 했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표 19>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	필요하다	33	57.9%
	필요하지 않다	24	42.1%
합계		57	100%

마.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앞의 문항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총 33명 가운데 13명이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을 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와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N=33)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6	18.2%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2	36.4%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39.4%
	의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	6.0%
	기타	0	0%
합계		33	100%

바.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들에게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총 24명 가운데 10명이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가 7명,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2명,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라는 응답도 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응답으로는 ‘독서치료는 치료 영역이지만 의학도서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에서는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의 소속은 병원 혹은 대학 소속으로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진료과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신경정신과 소속의 임상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 상담치료사들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N=24)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10	41.7%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7	29.2%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2	8.3%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	2	8.3%
	기타	3	12.5%
합계		24	100%

3.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 사항

그렇다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가장 먼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독서치료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전문성 신장 혹은 외부 독서치료전문가를 확보하는 ‘인력 확보’가 뒤를 이었고, 독서치료 관련 자료 및 외부 전문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 등의 ‘예산 지원’ 또한 필요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듯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정책을 수립한 뒤 적정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N=57)

변인	구분	N(응답자 수)	비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정책 수립	36	63.1%
	인력 확보	16	28.1%
	예산 지원	5	8.8%
	공간 구성	0	0%
	기타	0	0%
합계		57	1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57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요약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결론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설문문에 참여한 의학도서관 사서 중 독서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에 달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2.3%에 그쳐, 대부분의 사서들이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각 사서들마다 인식의 범위가 다르겠으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향후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55명은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2명은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에서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관이 아닌 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20명, '없다'는 응답이 37명이었다. 이 결과는 설문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학도서관 중 독서치료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향후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4명이었다.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들은 그 이유를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의 순으로 답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들은 그 이유를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의 순으로 답변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응답으로는 '독서치료는 치료 영역이지만 의학도서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에서는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의 소속은 병원 혹은 대학 소속으로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진료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신경정신과 소속의 임상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 상담치료사들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의학도서관의 사서들 중에는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에서 반드시 접목해 실시해야 할 서비스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원인은 사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점과 공간 구성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 또한 필요하다.

2. 제언

국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당장 접목을 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으나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학도서관에서 사서에 의해 독서치료 서비스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의 내용에는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항목도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입안자들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서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에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며, 서비스의 시작은 대상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위해서도 의학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는 의료진(의사 및 간호사), 의과대학생 및 간호대학생, 그리고 직원(병원종사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정리한 ‘3.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정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정 자료를 구비한 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이용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느라 자신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은 돌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매우 바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고학력에 많은 연봉을 받는 직종이라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신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지혜로우면서도 단순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문학작품을 구비해 별도의 서가를 배치한 뒤 목록을 만들어 각 진료과에 배부를 한다. 이 방법은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도서관 방문 시 자신에게 필요한 문학작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가 배치 및 목록 배부와 더불어 의학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독서치료 서비스는 시(詩)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시는 분량이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상징(symbol)과 은유(metaphor)라는 기재를 담고 있어 심리적 역동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바쁜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르의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매주 한 편의 적정 시를 골라 낭독을 해주는 기회를 갖거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이 주(週)의 시’라는 제목으로 게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문헌

- 강문국. 2006. 『경남지역 개원 의사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 권덕화, 고효정. 2003. 종합병원 일반 간호사의 근무지 이동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간호행정학회지』, 9(1): 141-150.
- 김경채. 2005.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적용 가능성. 『한국의학도서관』, 32(1-2): 39-52.
- 김수현 외. 2006. 일 의료기관 직원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지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3): 407-418.
- 김조자, 박지원. 1991. 간호사의 이직 결정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1(3): 383-395.
- 김종연 외. 2004. 개원의사와 개원한의사의 전문직업성, 직무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예방의학회지』, 37(1): 44-50.
- 김현희 외. 2004.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노동조, 김정아. 2010. 의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45-56.
- 박종 외. 1998.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 유급제도 개선을 위한 예비조사. 『조선의대 논문집』, 23(1): 85-94.
- 박찬원. 1999. 『의과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 이연주. 2009. 『의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운우. 2005. 『암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학중. 1985. 『조직행동 : 이론과 사례연구』. 서울: 세경사.
- 임성관. 2012.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을 중심으로』. 박사

- 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귀녀. 1985.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조두영. 1985. 『임상행동과학』. 서울: 일조각.
- 조찬식, 한혜영. 2005. 웹페이지를 통한 의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실태조사. 『정보관리학회지』, 22(2): 87-101.
- 조찬식. 2006. 의학도서관의 경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263-280.
- 조화순. 2011.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저널 이용행태와 서비스품질 지각 분석 : K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영식. 2014. 대학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 H대학도서관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74: 69-83.
- 한국의학도서관협회. 2005. 『2005 회원현황』. 서울: 한국의학도서관협회.
- 한우석, 김재열. 2008. 의료기관평가가 병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1(6): 2549-2580.
- 홍을표. 2007. 『노인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한 독서치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포천중문의과대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실버복지경영전공.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84(3): 261-271.
- Crothers, S. M. 1916. A Literary Clinic, *Atlantic Monthly*. In M. T. Moody & H. K. Limper(1971). *Bibliotherapy: Methods and material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rander, D., Parzen, Z. D., & Stewart, N. 1980. "The Nurse's Dilemma: Mediating Stress in Critical Care Units." *Heart & Lung*, 9(1): 103-106.
- Guthrie, E. A. et al. 1998. "Embarking upon a Medical Career: Psychological Morbidity in First Year Medical Students." *Medical Education*. 29(5): 337-341.
- Hannigan, Margaret C. 도서관과 비부리오세라피. 유중희 역. 1964. 『국회도서관보』, 1(3): 133-139.
- Hyness, A. M. and Hynes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 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Johnson, Barbara Coe. 1971. "Services an Intergrated Hospital Library Can and Cannot Provide." *ALA Bulletin*, 65(9): 1295.
- Karasek, R. A. Jr.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285–308.
- Khaleque, A., Siddique, A. B. 1984.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Shift Work. In: Atwood. D. A., McCann C.(eds) Proc. Int. Cong Occupational Ergonomics, Linzer, M. et al. 2002. “Physician Stress: Results from the Physician Worklife Study.” *Stress and Health*, 18: 37–42.
- Muldary, T. W. 1983. “Burnout and Health Professional: Manifestation and Management.” *Appleton-Century-Crofts. Norwalk*: 34–50.
- Sutherland, V. J. and Cooper, C. L. 1992. “Job Stres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Among General Practitioner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New Contract.” *British Medical Journal*, 304: 1545–1548.
- Tews, Ruth M. 1970. *Progress in Bibliotherapy*.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New York: Seminar Press.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Kunn Nyua. 1985. *A Study on the Adoptability of Bibliotherapy as one of the Library Service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Cho, Doo Young. 1985. *Clinical Behavioral Sciences*. Seoul: Ilchokak.
- Cho, Hwa Sun. 2011. *Analysis of Medical Library Users' Utilization Behavior and Service Quality Perception of Electronic Journals : Based on the survey data of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at 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 Choi, Young Sic. 2014. “Bibliotherapy Services of University Libraries : Focused on H University Libraries.” *Digital Library*. 74: 69–83.
- Han, Woo Sok & Kim, Jae Yeol. 2008. “The Effect of the Hospital Evaluation Progrmme to Business Performance in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 (6): 2549–2580.
- Hannigan, Margaret C. “Library & Bibliotherapy.” Ryu, Joong Hee Translation. 1964. *National Assembly Library*. 1 (3): 133–139.
- Hong, Ul Pyo. 2007.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ibliotherapy for the Elderly's Mental Disorder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Pochon CHA University.
- Jo, Chan Sik & Han, Hye Young. 2005.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rvices in

- Webpages of the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2): 87–101.
- Jo, Chan Sik. 2006.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263–280.
- Kang, Mun Kuk. 2006. *The Levels of Psychosocial Stress, Job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Medical Doctors Practicing at Private Clinic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Ph.D. diss., Gyeongsang University.
- Kim, Hyon Hee et al. 2004. *Bibliotherapy*. Seoul: Hakjisa.
- Kim, Jo Ja & Park, Ji Won. 1991.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s of Nurses to Resig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1(3): 383–395.
- Kim, Jong Yeon et al. 2004.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Western Doctors and Oriental Doctors Practicing at Local Clinic.”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7(1): 44–50.
- Kim, Kyung Chae. 2005.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ibliotherapy of Medical Library.” *Journal of Korean Medical Library*. 32(1–2): 39–52.
- Kim, Soo Hyun et al. 2006. “Perceived Stress, Life Style, Health Status Indicators in Medical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3): 407–418.
- Kwon, Deok Wha & Koh, Hyo Jung. 2003. “A Study of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Related to Transfer of Duty Post of Staff Nurses in the General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9(1): 141–150.
- Lee, Hak Jong. 1985. *Organizational Behavior : A Study on the Theory and Case*. Seoul: Sekyoungsa.
- Lee, Woon Wu. 2005. *Bibliotherapy for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an University.
- Lee, Yeon Jo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ser Education Model for Medical Librarie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Lim, Seong Gwan. 2012. *An Action Research on Bibliotherapy Effect :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arent-Child Interaction*. Ph.D. diss., Kyonggi University.
- Noh, Dong Jo & Kim, Jeong A. 2010. “A Study on the Analysis of Websites Contents in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45-56.

Park, Chan Won.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ark, Jong et al. 1998. "The Pilot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Flunk System in Chosun University Medical School." *Proceedings of the Medical College*. 23(1): 85-94.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05. *2005 Membership Status*. Seoul: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별첨>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 사서 선생님들이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알아본 뒤, 논문 작성을 통해 독서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응해주신다면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이 끝난 설문지는 이메일 harin75@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30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

1.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 조사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3)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기관의 소재지는?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경상남도 ④ 경상북도 ⑤ 전라남도 ⑥ 전라북도 ⑦ 충청남도 ⑧ 충청북도 ⑨ 제주도 ⑩ 서울특별시 ⑪ 부산광역시 ⑫ 인천광역시 ⑬ 대전광역시 ⑭ 대구광역시 ⑮ 광주광역시 ⑯ 울산광역시
- 4) 귀하의 사서 자격증은?
① 1급 정사서 ② 2급 정사서 ③ 준사서 ④ 사서 자격 미소지
- 5) 귀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① 상급종합병원 ② 종합병원 ③ 병원 ④ 병원급 의료기관 ⑤ 기타

6)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유형은?

① 의대도서관 ② 의대분관 ③ 의대 및 병원도서관 기능 ④ 병원도서관 ⑤ 기타

7) 귀하의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은 약 몇 년입니까? (약 년)

2. 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조사

다음은 귀하의 이용자 대상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하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다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5) 4)번의 항목에 '①필요하다' 라고 응답을 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②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③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의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⑤ 기타

6) 4)번의 항목에 '②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②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 ③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 ④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
- ⑤ 기타

3.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도 조사

1.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책 수립(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 ② 인력 확보(독서치료를 담당하는 사서의 전문성 신장 혹은 외부 독서치료 전문가 확보)
 - ③ 예산 지원(독서치료 관련 자료 구입 및 강사료 지원)
 - ④ 공간 구성(도서관 내 독서치료 상담실 구성)
 - ⑤ 기타

